

MK BLOSSOMER

김영철 양선나 MK 교육선교사



"오늘 다윗에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이시니라."
누가복음 2:11

12 월 기도 제목

- 학생들이 한 학기 마무리를 잘하고 기말 시험을 무사히 잘 치를 수 있도록
- 텐산 학교 교사들이 이번 학기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 김영철 선교사의 소화 기능 회복을 위해서

Merry Christmas!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으로 성탄절 인사를 드립니다. 카자흐스탄은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지내지 않습니다. 그날은 보통날과 다를 것 없이 그냥 또 다른 하루라고 합니다. 인구의 72%가 무슬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23%의 정교회 분들은 1월 7일에 성탄절을 지낸다고 합니다.

텐산학교에서도 크리스마스 맞이하여, Christmas concert 도 하고, 크리스마스 파티와, 시크릿 엔젤(비밀 친구가 선물을 주는 것)과 교실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첫 번째 semester를 끝내는 기말고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몇 번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 학기 동안 보살펴주시고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도 이곳에 온 지 벌써 8개월이 되어가는데,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 년에도 저희와 MK 사역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동역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콘서트

텐산 학교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인원 수는 많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모두 모여서 콘서트를 열고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을 격려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하진이도 오케스트라에서 첼로를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적응하는 시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대에서 첼로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에 저희 두 부부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하진이의 두피염과 적응을 위해서 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giving Assembly

미국 추석을 맞이하여 중고등부가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양선나 선교사가 "자신을 감사하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나누었습니다.



한국 학생들 찬양 모임

텐산 학교에는 한국어로 찬양을 하고 싶어 하는 한국 학생들의 비공식 모임('제이플')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회의하고 연습할 장소가 필요하여 Thanksgiving이 있는 주의 토요일에 학생들에게 음식과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음식과 장소를 제공한다는 생각이었는데, 학생들의 찬양과 기도 소리에 저희가 오히려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있고, 학생들이 직접 작사/작곡한 곡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는 학생들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

12월 10일에는 Secondary School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무궁과 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게임도 하고 운동회도 하였습니다. 즉석에서 크리스마스 연극 (skit)도 만들며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1학년 상담

11학년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점은 학생들의 배경과 학습 능력, 지금까지 거쳐간 나라들, 졸업 후에 가고 싶은 나라들이 다양하여 보다 일대일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개별 학생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양선나드림